

# 태고 원융사상 되살린다



원종사 태고보우스님 영정.

### 탄신 700주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

### 태고학회·사나사 등 세미나·국사추대식 재현

조계종에서 증종으로, 태고종에서 증종으로 모시고 있는 태고보우스님(1301~1382)의 탄신 70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학술 세미나, 추모다례제, 국사추대식 재현, 영산재 등이 다채롭게 열린다.

한국불교 태고학회(회장 무공스님)는 11월 4일 오후 1시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태고보우국사의 원융불교가 한국불교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갖는다.

태고종과 조계종, 일불선교종 등이 공동 주최하며 태고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학술 회의에서는 동국대 권기종 교수가 '한국불교에 있어서의 태고보우국사의 원융불교사상과 그 위상', 영산원불교대의 김방룡 교수가 '태고보우국사와 보조선국사의 사상과 수행교법 비교 연구', 정신문화연구원 허홍식 교수가 '공민왕시 조계종과 화엄종의 갈등(태고회상과 '편조'를 중심으로), 중국 남경대 홍수평 교수가 '원대 선종의 법맥에 대한 소고' 등 7명이 발표하고 서운

길 교수(동국대), 법산(동국대 교수), 종범스님(중앙승가대 총장) 등이 토론에 참가한다. 태고종은 이번 세미나와 더불어 탄생일인 11월 6일, 스님의 부도가 있는 북한산 태고사에서 500여명이 참가하는 대대적인 추모다례제를 봉행할 예정이다.

한편 사나사(주지 화엄도 스님)의 사상을 선양하는 기념세미나와 함께 11월 6일 추모다례제 봉행, 국사 추대식을 전통의식으로 재현할 예정이다. 국사 추대식은 6백여 년전에 보우스님이 국사로 추대됐던 당시 상황을 현실감있게 재현한다. 양명유내에서 사나사까지 가두행진이 진행되며 공민왕에 의해 국사로 추대됐던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국사추대교지'와 예물을 소지한 여사가 사나사까지 도착하는 전통행사 '가두파레이드'가 펼쳐진다. 또 여사가 보우스님에게 직접 교지와 예물을 올리는 봉헌의식, 보우스님이 국사로 추대됨에 따라 현에서 양근군(현 양평군)으로 군승격이 됨

을 선포하는 '군선포식' 등으로 진행되며 이후에는 산사음악회도 개최된다.

한편 사나사는 21일 사나사에서 '태고보우스님 추모다례제 및 만공불사 원만성취를 위한 영산재대법회를 봉행했다. 또한 23일 오후 2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태고보우 스님의 생애와 사상' 주제로 기념세미나도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증종스님(동국대 교수)이 '태고보우 스님의 사상과 현대적 의의', 차차석 박사(동국대 강사)가 '석속, 보우 선사상비교(논문내용 16면 참조)' 등을 발표하고 이기선(불교조형연구소) 장씨가 새로 발견된 소설삼십 출토 비문을 중심으로 태고보우국사 관련 유품과 유적에 대해 발표한다.

한국불교의 '뿌리'로 추앙되는 태고보우스님은 13세에 출가, 신라구산선문의 하나인 가지산에서 수행했다. 선교일체론을 주장하며 선과 교를 다른 것으로 보던 당시의 불교관을 바로잡았다. 스님은 구산을 통합하면서 공개적으로 '조계종'으로 이름을 붙여 오늘날의 조계종을 명명한 스님으로, 말년에 공민왕과 우왕의 왕사로 추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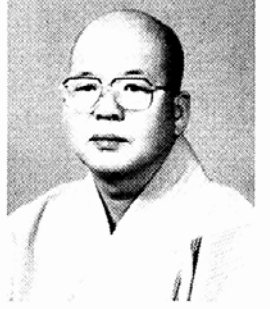
태고학회장 무공스님은 "오늘날 우리 한국의 불교도는 수행상으로 보나 종파, 종책상으로 보나 모두 태고보우국사의 사상과 법통을 계승한 문승들이 대부분"이라며 "스님의 원융종통사상과 수행기공을 되살리는 일은 오늘날 한국불교계의 과제요, 전 인류가 실현해야 할 여명"이라고 밝혔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 사암련 회장에 듣는다

# 미륵산 케이블카 반대 범시민 운동 이끌어

### 통영불교사암련 선곡스님



"통영불교는 호국불교의 맥을 이으며 민족적 정서와 지역민의 애환과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민의 생활 중심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불교가 되도록 다양한 포교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통영불교사암련회 회장 선곡스님(용화사 주지)은 그동안 활동 침체로 어려움을 겪어온 통영사암련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새롭게 각오를 밝혔다.

통영에는 유독 사암 사암이 많고 사암련의 규모도 작아 활동 전반에 어려움이 많은 편. 그러나 18년전 창립된 통영사암련은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영인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단체가 되어 있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를 위해 스님은 회원사찰과 신도들과 함께 매일 1회 미륵산 정산에 올라 주변 환경 정화 운동, 케이블카 설치 반대 홍보, 서명운동 등을 벌이며 시민들의 뜻을 결집하고 있다. 2년간 여성단체, 환경단체, 산악회 등과 연대해 성명서를 내고 서명운동을 벌이며 미륵산 케이블카

### 재소자 위문법회 지속

다. 그동안 꾸준히 펼쳐 온 재소자 위문법회, 불우 이웃 돕기, 봉

선곡스님(용화사 주지)은 "케이블카 설치 반대 운동을 지속해온 선곡스님은 '케이블카 설치 완전 백

### 불자학생 장학사업 추진

축법회, 제등행렬 축제 등으로 지역민들의 요구에 부합해 왔기 때문이다.

지화될 때까지 등 모든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통영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시민의 모임'에서도 공동대표를 맡아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선곡스님은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승병들이 수행했던 청정수행도장을 지키는 일에 사암련 협회가 나서서 것은 불교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일뿐"이라며 "호국성지인 동시에 시민들의 귀의처가 되어온 미륵산을 관광개발이라는 단순 논리로 파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반 활동을 통해 불교가 중단을 초월한 화합된 모습을 신도들과 지역민들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된 선곡스님은 23개 회원사찰과 그밖의 비회원 사찰들과의 유대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불교가 한 목소리를 낼 때 대사회적 역량이 커지기 때문.

선곡스님은 "통영의 모든 불자들이 한마음이 된다면 미래의 주역을 키워내는 장학사업도 조만간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영=천미희 기자

## "월드컵 성공 발원"

### 갑사 11월 3~4일 개산재...괘불이운도

계룡산 갑사주지 장공는 11월 3일부터 4일까지 갑사 경내에서 '민족의 번영과 2002년 월드컵 성공 개원을 위한 창건 1581주년 개산대제 및 영구대사 순국 409주년 추모제'를 봉행한다.

3일 오후 2시부터 중도불교문인협회, 중앙인문연구원, 백제불교사상연구회 주관으로 열리는 개산대제 기념 학술 회의는 한국불교사상의 집대성인 '월인석보의 문화사적 조명'을 주제로 열린다. <월인석보>의 '문화사적 위상' (사재동, 중앙인문연구원), '국어사적 위상' (김영배, 동국대 교수), <월인석보> 팔상도 판화의 도상과 의의(김창근, 문화재청) 등이 발표된다.

4일 오전 8시부터는 가정의 안락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갑사 괘불(국보 298호) 이운식, 태아영가 천도를 위한 영산재(영산재보존연구회), 기하당 영구대사와 800의승군 추모제가 잇달아 열린다. 특히 영구대사 추모제는 처음으로 육해공군승군단과 군불교총신도회 주관으로 열리며, 행사 기간동안 '자비의 쌀 모으기' 행사를 개최해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갑사 주지 장공스님은 "800여 의승군과 함께 신화한 영구대사는 기존의 승군 활동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전개된 것과 달리, 처음으로 불교계의 의병활동을 일으켜 호국불교의 연원을 이루었다"면서 "이러한 대승보살도를 이어받아 경제난 타개와 월드컵 성공개원을 발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041)857-8981 김재경 기자



## "남북통일 기원"

### 중앙탑 탑돌이 시연

우리나라 중앙에 위치한 충주시 금강면 소재 중앙탑(국보 제6호)에서 14일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중앙탑돌이 시연대법회'가 봉행됐다. 우뚝문화재 일환으로 열린 이번 법회에서 충주불교총연합회(회장 의천스님)는 중앙탑돌이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 불교수행과정인 육바라밀 정진도를 따라 도는 탑돌이를 시연해 시민들의 갈채를 받았다.

충주=고영배 기자

## 해남 미항사 동자상 도난

### 비지정문화재...벽송사 목조불상·탱화도

사찰소장 비지정문화재 도난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전남 해남 미항사 응진당에 봉안돼 있던 폭 20cm, 키 60cm의 목 동자상 8구가운데 7구가 15일 새벽 도난당했다. 처음 도난사실을 발견한 주지 금강 스님은 "이날 새벽 예불을 위해 나와 보니 응진당 어칸문의 자물쇠가 절단기로 잘려 있고 동자상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약 270여 년 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

된 동자상은 1985년 봄에 도난당했다가 다시 찾은 바 있다.

이에 앞서 12일 새벽에는 경남 함양 벽송사에 봉안된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목조대세지보살좌상, 후불탱화를 도난당했다. 도난품은 모두 조선 후기 때 목조품으로 이중 후불탱화에는 1897년이라는 제작연대가 표시돼 있다.

권형진 기자 jiny@buddhapia.com

## 전주교도소 체육대회

### 스님·신부·목사도 참여

한 교도소에서 재소자와 스님, 신부님, 목사님들이 함께 어울린 잔치가 벌어졌다. 전주교도소교정협의회는 12일 진안 금당사 주지 진해스님, 익산 도덕사 주지 청림스님, 신부님, 목사님,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행자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각 종교 성직자들은 재소자들과 같이 줄다리기, 씨름, 공굴리기 등 경기에 임하며, 재소자들이 과거 한순간의 실수를 참회하고 새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했다. 조기석 전북지사장

## M 연꽃불자시계



특별사은품 (달마시계 + 수일옥 108염주)

남성용, 여성용 각각 119,000원

『불자들만을 위한 연꽃 불자시계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튼튼한 시계를 원하는 불자들에게 안정 맞춤인 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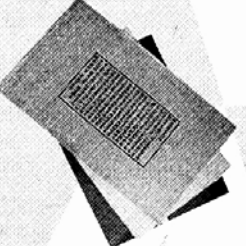
## M 불자용 방석



·재질: 면  
·크기: 약 50cm x 50cm  
·가격: 20,000원

『법회, 기도하실 때 뿐만 아니라 사무실 의자, 자동차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쁘고 실용적으로 만든 방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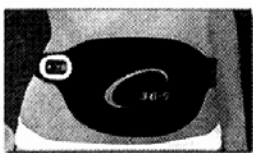
## M 겹다포



·재질: 면  
·색상: 황토색 (크기: 41cm x 68cm)  
·밤 색 (크기: 43cm x 58cm)  
·회 색 (크기: 38.5cm x 58cm)  
·가격: 각 6,000원

『전통적인 방법으로 염색하여 색상이 너무나도 곱습니다』

## M 옥(玉) 건강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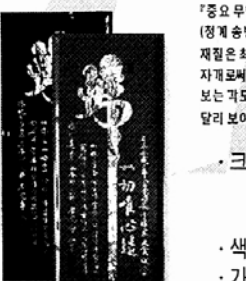
·내용물: 건강벨트, 온도조절기, 어댑터, 시가잭, 충전기 / 배터리 (휴대용 구입시)  
·가격: 가장용 148,000원, 휴대용 248,000원

## M 우리말 모범연화경



1. 서품 ~ 27. 보현보살권발품까지 총 27장의 CD를 패키지상품으로 구성하여 15%(270,000원-229,500원 = 40,500원) 할인된 가격으로 드립니다.  
·정상가: 270,000원 ◯ 할인가: 229,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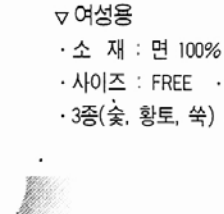
## M 자개모자佛자



『중요 무형문화재 제10호 기능 보유자인 洪溪 末芳維 (정계 송방위) 선생이전설로 기려 제작한 것입니다. 제품의 재질은 최고급 용승에 5번에 걸쳐 나뉠을 한 후 최고급 자개모자 공예를 세공했습니다. 특히 자개는 빛의 강도와 보는 각도에 따라 색깔이 변화되어 낮과 밤에 다르게 빛이 달리 보이는 묘미가 있습니다』

·크기: 가로 235mm x 세로 560mm x 높이 25mm  
·색상: 적색, 흑색  
·가격: 660,000원

## M 한방속옷 세트



▽ 여성용  
·소재: 면 100% (60수)  
·사이즈: FREE ·구 성: 숏, 황토, 싹  
·3종(숏, 황토, 싹) 세트: 19,000원

『한방속옷은 옛부터 전해 내려오던 전통적인 염색법에 의한 한방의류로서, 기존의 인체에 해로운 화학약품으로 염색한 의류와는 전혀 다른 숏, 황토, 싹등 인체에 유익한 100% 천연 한방약재로 염색 처리한 한방의류입니다』



△ 남성용  
·소재: 면 100% ·사이즈: 95, 100, 105  
·특 징: 건강을 위하여 회음부분에 옥기루 부착  
·5종(숏, 황토, 싹, 도토리, 오배자) 세트: 45,000원  
·3종(숏, 황토, 싹) 세트: 29,000원